

月刊『考試界』창간 67주년 기념호
-통권 796호-



기념 축사

‘법학’과 함께 100주년을 넘어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 조홍식(제16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과 함께 100주년을 넘어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월간 『考試界』의 창간 67주년을 마음을 다해 축하드리며, 수많은 수험생에게 법학을 가르쳐 왔고 또 법학을 연구하고 있는 전국의 법학 교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56년 5월, 어려운 환경에서 창간된 『考試界』는 각종 시험정보와 합격수기 등을 담은 수험정보지의 기능은 물론, 우수한 학술논문과 판례평석 등을 담은 학술지의 기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명실상부하게 『考試界』의 중심이었으며 ‘법학계’의 동반자 역할로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 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법치주의가 강조되고 법적 사고양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법조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TV드라마나 영화가 널리 히트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중요성은 이러한 현상과 전혀 보조를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전국의 법과대학과 법학과는 존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고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을 위한 학원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탄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된 사회적 조건을 뜯어고치고 필요한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학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켜야 합니다. 각종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증 시험,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입사시험 등에 있어서 법학이 시험과목으로 채택·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법적 전문성을 배경으로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각종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에게 법리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인이 합리적인 법의식에 터 잡아 법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토대가 됨은 물론이고, 학부에서부터 법학을 익히고 연구하는 인적 자원을 확대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학이 변호사 시험 과목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학문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학부의 법교육 강화를 통하여 학문후속세대가 지속적으로 양성되어야 할 것이며, 학부에서부터 법학을 전공한 인재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폭넓게 열려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제고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 필수과목 이외의 법학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교육이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 홍 식

- 現) 제16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現) 기후환경대사
- 前) 부산지방법원 판사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입니다. 법교육은 「법교육지원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거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로 진출하는 데 법학이 필수적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아가 법원직·검찰직·경찰간부·일반행정직 등 분야별 공무원시험을 거쳐 공직자로 활약하기 위해서도, 변리사·법무사·노무사·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시험을 거쳐 법률전문직 분야로 진출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공공기관·공기업을 포함하는 기업에 취업하여 법무, 인사, 기획, 감사 등의 법률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도, 법학은 중요한 학문임이 틀림없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考試界』보다 8년 늦은 1964년 창립되어 올해로 59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법학교수회와 회원 교수님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법학교육을 통하여 법치

주의를 구현하고 이로써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법학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학이 작금에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과거 사법시험이 시행되던 시절, 그리고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과목에서 법학이 중심을 이루던 시절과 달리,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각종 시험과목에서 법학과목이 줄어들면서 『考試界』가 처한 현실도 법학이라는 학문이 처한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考試界』가 곳곳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올해로 창간 6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음은 ‘법학’에게도 정말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考試界』가 앞으로도 ‘법학’과 함께 100주년을 넘어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줄곧 건전한 법률문화의 창달을 표방하고 있는 월간 법률지 『考試界』가 수험정보지의 기능, 학술지의 기능에 보태어 우리 법학교수회와 함께 법학교육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제도를 고민하고 제안할 수 있는 영원한 ‘법학’의 동반자로 남아주기를 기원하고 소망합니다.